

“상생경제 전북 이를 것”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경제정책 공약 발표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31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상생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전북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에 이어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돕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제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 지역통화 전

북코인’ 발행 및 운영사업,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청년 자영업인턴 운영,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라북도 백년가업 육성, 자영업·골목상권 민생현장상담실 운영 등 세부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송 후보는 7개 공약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과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사업, 공유경제 시범 공유마을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이번엔 꼭 엄지척” 지난 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은 김승환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당내 전북지역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는 모습.

6·13 지방선거

전북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
“지역화폐 발행할 것”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
한풍루 충혼탑 참배

심민 임실군수 후보
“애향 장학금 확대 지급”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항로 진안군수 후보는 지난 31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읍내 상가를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약을 설명하는 등 유권자 마음 잡기에 주력했다.

그는 “청년수당 지급, 효 바우처사업 등 군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교환해 진안고원시장의 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는 지난 31일 무주읍 한풍루 충혼탑을 찾아 무주군수 선거전에 임하는 필승의지를 다졌다.



백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4,000억 예산 무주시대를 열어 군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무주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충혼탑 참배를 마친 백경태 후보는 무주군청을 찾아 황정수 군수를 예방하고 오후에는 무주 읍내를 비롯해 안성, 설천, 무풍, 적상, 부남 등 6개 읍면을 돌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6·13 지방선거 거무소속 심민 전북 임실군수 후보가 애향 장학금 확대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지난 31일 도시지역에 버금가는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미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핵심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봉황인재학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보다 훌륭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임실군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을 연간 100명으로 확대해 10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전북도교육감 선거 ‘5파전’

“내가 전북교육의 책임자”

후보자 일제 유세활동 돌입

- 김승환 후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교육 조성”
- 서거석 후보 “소통·협력 발전하는 교육 만들 것”
- 이미영 후보 “꿈과 희망의 교육행정에 집중”
- 황호진 후보 “새롭게 발전시키는 교육실천가 될 것”
- 이재경 후보 “열정·금지·신뢰의 전북교육 완성”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31일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교육감 후보들도 일제히 “전북교육을 이끌 책임자”임을 강조하며 유세 활동에 돌입했다.

김승환 후보는 전주 롯데백화점 앞에서 첫 유세를 갖고, 선거전에 임했다. 김 후보는 “전북교육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4년 더 기회를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거석 후보도 전북대학교 구(옛) 정문 앞에서 선거 자원봉사자와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서 후보는 “전북교육이 불통과 오만의 시대를 접고, 소통과 협력으로 발

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이미영 후보도 “전북의 청소년들이 더 크고, 더 넓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을 만끽할 수 있게 하겠다”며 “꿈과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집중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주 평화동에서 선거 출정식을 연 황호진 후보는 “지난 8년간 전북교육은 무능력, 불통행정, 학력저하 등으로 정부수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전북교육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교육실천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후보 역시 “학생들에게는 꿈과 열정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안심과 신뢰를 주는 전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부탁했다.

/기동취재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31일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교육감 후보들도 유세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유세에 돌입한 김승환 후보(사진 왼쪽부터)와 서거석 후보.

부안군 미취업자 취업, 창업 교육생 모집

주요 교육내용

- ▶ 참봉 활용 신 요리 실습, 제과·제빵 실습
- ▶ 오디오와인, 오디오로 실습
- ▶ 사회적 경제 및 식품위생 교육
- ▶ 산업체 탐방 및 취업연계

모집대상 취, 창업을 희망하는 부안군민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우대)

모집기간 2018. 5. 14(월) ~ 6. 29(금)

신청방법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E suyong2@kijeon.ac.kr
(신청서 제출 : www.kijeon.ac.kr 접수 후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모집인원 15명

교육기간 2018. 7. 2(월) ~ 8. 6(월) (120시간)

교육비용 전액지원(식비포함)

교육장소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교육지원 참여자 교육비 전액무료 (훈련수당 월 최대 식비포함 30만원 지급)

부안 참봉 산업 활성화와 부안군민의 취업을 위해 전주기전대학과 부안군이 함께합니다.

사업설명회 장소 :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1차 2018. 6. 7(목) [오후 2시] 2차 2018. 6. 21(목) [오후 2시]

“사업설명회 참석인원 선착순 20명 기념품 증정”

부안군 고용노동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문의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T 063-280-5238 이메일 suyong2@kijeon.ac.kr

서틀버스타고 월드컵 출정식 보러 오세요

전북도, 한국VS보스니아 평가전 관중수송 대책 마련

전북도는 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보스니아 헤르체비나와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의 관중수송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지난 2013년 크로아티아와 A매치 경기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축구 A매치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최초로 축구국가대표팀 월드컵 출정식도 함께 진행돼 손흥민, 기성용 등 월드컵 태극전사가 출몰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번 평가전이 월드컵 직전에 개최되는 중요한 경기인 만큼 전북도민과 축구팬의 관심이 높아 많은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전주시와 함께 관중수송 대책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 당일 관중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주공고, 한국전력공사, 민월초등학교, 수자원공사 등 4개소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 당일 서틀버스 35대를 종합경기장, 전북도청, 화산체육관, 전주공고 등 4개소에서 운행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쌀 품질 고급화에 77억원 투자

도,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5개소 74억원
가공시설 교육·홍보·컨설팅 5개소 3억원

전북도는 고품질 쌀 유통기반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교육·홍보·컨설팅 2개 사업에 77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먼저, 전북 쌀의 미질 향상과 수확기 원활한 농가 벼 매입을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을 RPC(농협 포함) 5개소에 74억원을 투자한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농가로부터 매입한 벼의 건조, 저장, 가공,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해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전주 북전주농협, 군산 동군산농협, 정읍 정읍통합RPC, 남원 남원농협, 김제 이택RPC이다.

또한 전북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은 물론 RPC 가공시설에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컨설팅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된 쌀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소 RPC(농협 포함)에 3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전북도는 2019년도에도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벼 건조·저장시설 5개소 등 총6개소, 181억원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도 신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 생산 과정뿐 아니라 건조·저장·가공 등 수확후 처리가 중요하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전북 쌀을 만들어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